

컴퓨터 통신에 나타난 말과 글의 오염

맞춤법과 문법 파괴 등 언어생활 외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이정민

서울대 교수·언어학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 통신의 대화방(chatting room)에 나타나는 글을 보면 처음에는 암호문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거기에도 어떤 경향과 특징이 있다.

발음대로 쓰기, 축약형 등의 경향

우선 청소년들은 말을 발음대로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미노완냐(민호 왔나?)/왜 부짜바(왜 붙잡아?)/아라파니깐(알았따니깐)/아라씨 아라씨(알았어, 알았어)/이거 미치겐네(이거 미치겠네)/안나세요(안녕하세요)처럼 사람의 이름까지도 소리나는 대로 쓰고 있어 '소리나는 대로'라는 점에 있어 상당히 철저하다. 우리말의 음운 규칙, 음성규칙을 잘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음성적 표기로서 흠잡을 데 없고 일관성이 있을 정도다.

실상 철자법을 소리나는 대로 적기로 할 것이냐 또는 지금의 맞춤법처럼 기저 음운 표시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문자생활의 정책상 통일된 맞춤법을 제정해 쓰고 있는 이상 모두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의 문제이다. 엄격히 말해, 발음대로 적는 것은 우리말의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책적으로 정해진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위의 예에 나타난 발음 그 자체는 우리말 발음 그대로이므로 우리말 문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두번째 특징으로 청소년들은 표현의 발음을 줄인 축약형을 즐겨 쓴다. 예를 들면 갈 쳐주세요(가르쳐주세요)/어좌요(어서 와요)/어섯쇼(어서 오십시오)/전(저는)/넌(내일)/집은 설 아니신감...?(택은 서울 아니신감?) 등이 있다.

말투를 거의 그대로 글로 옮기려는 노력으로 문장어미의 발음('안녕하세요-'나 '어찌나여' '없는데용' 등)이 괴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여'의 경우, '-요'보다 '-여'에 가깝게 발음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듯하며, 문장어미 끝에 '오' 발음이 붙는 것은 TV 개그맨의 영향인 듯).

소리말의 특징인 감탄사, 디딤말(hedge), 의성·의태어가 많이 동원되는 경향

도 보인다. '켓' '쩍' '오호' '아휴' 등의 감탄사, '그니깐' '이짜나여' 등의 디딤말, '쿠쿠쿠' '으' '뽕' '무지막지하게' 등의 의성·의태어가 자유롭게 등장한다. '새까' 같은 비속어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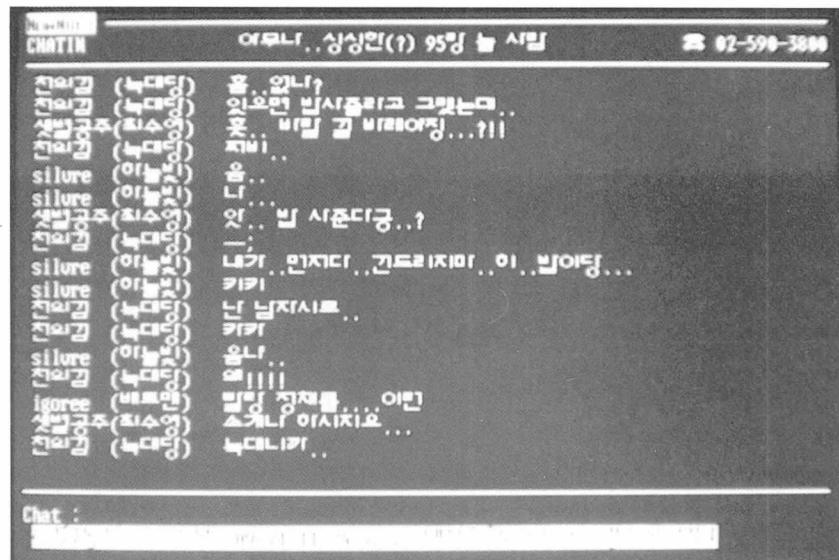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대화방 글의 두드러진 특징 한가지는 어릴 때 쓰던 어리광 어린 발음과 어휘를 동원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약올리기 위해 놀리는 제스처와 함께 쓰는 '메롱'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대체로 국민학교 때까지 쓰고 잘 안 쓰는 말이다. '빌려조'의 '조' 발음과 '시로'('싫어')의 '고' 발음, '뜯었쨌용'의 '쨌' 대신의 '쩌' 발음은 아주 어린아이의 발음을 흉내낸 것이다.

구어투에서만 나타나는 '-주라?' '안돼남'('안되남'을 잘못 쓴 것) '모른다 이거지' '썸만' '별루야' '주겠다' 등이 자유로이 나타난다. 구어에 잘 나오는데 문장어미 '-지'의 빈도 또한 높다('이거지' '가야지' '안타깝지이').

문장 구조도 대화에 나타나는 소리말의 특징인 파격적인 어순을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다. 어순을 기본적인 데서 벗어나 대화에서처럼 파격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더욱 극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밖에도 웃음이나 찡그림의 그림 표시 등 시각적인 기호를 쓰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맞춤법과 문어의 틀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생생하고도 자유분방하게 또 경제적으로 글을 쓰면서 파격의 재미를 맛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통신문은 격식이 간소화되거나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다. 경어 문체와 관련하여 문장어미 굴절을 생략하는 경우, 경어 표현은 완전히 사라지고 명사형 어미로 맺는 경우에도 경어 관계가 선명치 않다.

대화방 청소년들이 만일 '이짜나여'에서처럼 '-요' 대신 '-여'를 더 많이 쓰고 이것이 계속 전파된다면, 대화상의 상대 높임으로 이체는 제일 많이 쓰이는 '-요'마저 그 기능이 흔들리지 않을까 짐작된다. '-여'에서는 '-요'에서 볼 수 있는 공손이나 높임의 느낌이 엷어지는 듯하다. '잘가여...' 하는 말은 높임이라고 보기 힘들다. '어서 와요'도 나타나, 이는 보통 어른이



컴퓨터 통신언어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게 말할 때 쓰는 어투다.

얼치기 경어도 등장한다. 예컨대, '중3 이신가??' 하고 얼치기 경어로 물으면 '아니요...' '음... 그럼?' '맞춰보세요...' '중1?' '네 중1'. 끝의 대답 '네 중1'도 경어와 반말이 섞여 있다. 고어체 높임말을 동원해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동명씨 정체를 밝히시와요'와 같은 발화다. '여비님은 며칠이세요?' 같은 표현은 '-서'가 들어가 높이면서도 '몇살'이라는 높이지 않는 표현을 쓰고 더욱이 '짤'이라고 어린아이 발음을 쓰고 있다.

저속한 표현 등 문제 심각

그러면,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PC 통신 대화방의 대화 글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 일반 및 그밖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내 세 PC 통신 매체에 가입한 인구가 수십만명이라고 하고 대화방을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엄청난 현실을 감안할 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듯하다.

첫째, 현행 맞춤법과 때로는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대화방 표기방식은 열린 사회의 열린 말과 글의 사용 원칙에 어긋나, 단힌 집단의 배타적 사고를 기르기 쉽다. 또한 맞춤법 지식이 확고해진 사람에게는 파격의 재미를 느끼게 하겠지만, 확고해지지 않은 국교생 및 중학교 하급학년들에게는 맞춤법의 혼란을 겪게 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화방에서만 그러한 글을 쓰고 나머지 생활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문자생활을 한다면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든 버릇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크게 주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교통규칙은 항상 지켜야지 급할 때는 좀 어길 수도 있다는 사고와 행동은 위험하다. 자유분방한 문자생활이 다른 규칙들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짧고 즉흥적이며, 직접적이고도 생생한 문체로 부담없이 쉽게 글을 쓰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감적인 데로 흘러, 이지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와 문법을 갖추면서도 상황에 맞게 언어와 문자를 쓸 수 있는 원숙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소리말과 문어도 섞여 나타나고 있고('흐음 너 친구에게 미안타...'('한테'가 아니고), '50쇼'의 실험에서 보듯이, 정확히 따지면 '50'의 '오'는 길고 강세가 있기 때문에 '오다'의 '오'와 발음이 다른데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셋째, '도우말'에서 음란하거나 저속한 말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안겨볼래?' '너 칼치 먹었나?' '윤정이두 플레이 걸인데' '여자애를 꼬셔가지구' 등의 표현이 그것으로 심각하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밤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려 있어 기특하게만 생각할 텐데 이를 아실 때의 실망이 얼마나 크실지 생각해 볼 일이다. ❖